

勉學의 障礙와 克服

金 正 午

(서울대 心理學科 助教授)

I. 머리말

筆者는 우연한 기회에 筆者가 전공하는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한 적이 있다. 필자와 동료들은 成績이 불량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大學生들과 成績이 우수한 大學生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특성, 공부방략(study strategy), 구체적 공부행동 등을 비교하여 성적이 부진한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大學生들이 겪고 있는 면학의 장애가 심각한 반면 이를 해결할 목적의 代案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은 필자가 틈틈이 생각해 본 것으로서, 勉學의 障礙 類型, 그 原因 및 解決을 위한 試案으로 구성된다.

II. 勉學의 障礙 類型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선발된 대학에서 학생들은 여러 유형의 면학 장애를 경험하며, 실제 학생 개인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는다. 면학의 장애가 분명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격불량으로 인한 學事懲戒이다. 서울대학의 경우, 매 학기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면학 장애를

보이는 학생 이외에도,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공부에서 다소의 장애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轉科 희망이다. 몇 년전 모 대학에서 약 7,000 명의 전국 大學生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0% 정도의 학생들이 전과를 희망하였다.

학사정계를 받거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면학의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공 공부를 4학년에 가서 미로소 시작하는 학생들도 전공과 관련해서 면학의 장애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면학의 장애는 실제로 그 유형이 심한 것에서부터 미약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학 생활에서 학생이 면학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다. 학생이 전문 지식을 철저히 배울 기회가 상실되고, 자신의 知的 能力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며, 여러 가지 적응 문제를 일으킨다. 가정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한 大學生으로 교육하기까지 소요된 심리적, 경제적 투자가 最終 段階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 고급인력과 전문가의 양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면학의 장애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이며, 그것이 학생 자신, 가족 및 사회에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가 크다. 筆者는 이 글에서

면학의 장애 원인들을 대략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勉學 障礙의 原因

대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筆者의 연구와 또 다른 연구의 결과들을 참고해 보면, 대략 다음의 세 범주로 묶어 볼 수 있다. 공부와 관련해서 학생 자신의 內的原因, 工夫 以外의 原因 및 대학교육의 특성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바로 그것이다. 내적 원인에는 학생의 學習意欲 저하,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존지식의 결여,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부족, 추리력과 독서력의 빈약, 기타 학습능력상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공부 이외의 원인에는 전공에 대한 先入見, 가정분위기 및 경제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 대학교육의 특성과 관계되는 원인들로 교육목표, 교수법, 학생의 실력 평가방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1. 內的 原因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 왔다는 사실로 일단 目標를 달성했으므로 고등학교 때와 같은 정도로 공부해야 할 강한의욕을 느끼지 못한다. 새 친구, 새로운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한다.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이 취미 또는 교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클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공부할 분명한 目標가 없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학습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데 있다. 눈에 뜨이는 예로서, 대학 1학년과 2학년 때 서클활동에 열심인 나머지 공부를 등한히 하여 成績不良으로 학사제명을 당한 학생들이 있다.

학습의욕의 감소 이외에도 면학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즉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배우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얻은 일반 지식으로는 불충분하다. 전공의 지식을 소화하는 데 요구되는 既存 知識이 빈약한 학생들은 이 때문

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 기존 지식이 빈약할 경우 강의 內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 자신은 “전공에 흥미가 없다”라든지 “나는 이 전공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속단한다. 이는 전공을 심층적으로 공부해 볼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것이다.

대학공부는 학생에게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공부방법을 사용하기를 요구한다. 배우는 지식의 내용과 깊이가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학생은 이에 따라서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習慣이 된 기존 공부방법을 새것으로 바꾸기란 어려운 일이고, 학생 자신이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입시 경쟁을 이겨내었다는 것은 학생이 사용한 공부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대학공부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한 원인이 공부방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知識의 내용이 달라지면 그것을 이해하고 속달하는 데 사용하는 공부방법 역시 검토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이 인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대학생들은 다른 점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전문지식의 습득, 소질의 개발, 연구 능력의 배양 등이 그 주요 목표이다. 따라서 전공서적과 전문적인 잡지에 나온 論文들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이때 추리력, 독서력 같은 高等思考能力상에 문제들을 보인다.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 철저한 독서 태도 등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대학 상급반 강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전공 서적이나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歸納推想을 요구하면 학생들 중 이를 잘 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은 또한 발표력, 토의력, 또는 논문작성을 위한 문장력에서도 빈약함을 보이기도 한다. 짧은 강의시간에 배우는 많은 분량의 지식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거나, 레포트를 작성할 때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2. 工夫 이외의 原因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문제들 중 면학에 지장을 주는 공부 이외의 원인들로는 전공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경제적 여건 및 가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 중에는 전과를 하려 하거나, 전공에 몰두하지 못하고 대학 4년까지 방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그 한 이유는 전공의 전망이나 다른 전공에 대한 先入見 때문에 학생 자신이 전공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려 하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흥미가 없다”는 식으로 속단하는 데 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과거 경험, 사회적 觀念 또는 선입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선입견, 그것도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전공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다른 전공을 해 보려는 행동을 많이 한다.

선입견이 지닌 면학 태도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생 개인의 家庭環境이나 경제 문제도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 들어서서 학생과 부모들간의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試驗 공부를 하기를 부모가 원한다는지, 학자금 때문에 쪼들릴 때 학생 자신은 좌절감, 압박감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포함한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이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잘 해결해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缺講, 주의 집중의 결여, 공부에 대한 計劃을 세우지 못하는 등 공부 행동에서 곤란을 보인다. 공부와 관련되는 원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이외의 요인들도 학생의 면학에 지장을 준다.

3. 大學教育의 성질과 관련된 原因

필자는 대학교육의 性質을 자세히 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단지 연구 대상이었던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추리해 본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교육과 면학의 장애간의 關係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은 그 목표에서도 다르지만, 강의 방식, 학생의 실력평가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의 공부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고시, 취직시험, 대학원 진학 등이 그 목표들인데, 대학입학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서 다양하고, 또 개방되어 있다. 대학 공부는 학생이 一般知識을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專門知識을 철저히 이해, 숙달, 활용 및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대학교육은 그 목표와 교육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이 강의식, 발표식, 토론식, 실험 위주 등 다양하며, 한 과목에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양식도 다양하다. 공부내용, 평가 방식 및 授業進行이 잘 짜여지고, 제한된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서 대학교육이 상당히 다르므로 학생들은 어떤 과목에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에 비해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情報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객관적 여건들 때문에 학생은 자신이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다. 어떤 학생이 필자에게 한 말로 표현하면 “조금 놀았는데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다”는 식이다.

사람이 어떤 環境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그 환경을 개선하려면 그 환경의 특성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행동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성질과 학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충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다 잘될 것을 예상하는지도 모른다. 필자의 연구에서 보면, 대학생들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에 따른 급격한 환경 變化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앞서 언급된 모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大學生活 전반에서 자기가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 40%나 되었다. 만약 이들이 대학교육과 생활의 성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졌더라면 感情的·認知的으로 준비되어 실직한 또는 다소의 적응문제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면학의 장애를 초래하는 여러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있고, 또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학생의 전공공부를 부실하게 만든다.

Ⅳ. 勉學의 障礙 克服

필자가 다음에 제시하는 방안은 어디까지나 試案이다. 앞에서 지적된 장애의 원인들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효과적인 장애 對處方略으로 생각된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情報를 충실히 제공하고, 進路指導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대학교육의 내용, 강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심적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둘째,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에 대해 폐쇄된 마음(closed mind)이 아니라 열린 마음(open mind)으로 접근할 필요를 신입생에게 주지시킨다.

세째, 대학공부에 대한 意慾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이 방안은 여러 下位 方案들로 구성된다. 예컨대, 대학생들에게 흥미나 적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노력의 부산물임을 주지시키며, 전공 분야에 관한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고, 成就欲求를 고양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학습의욕을 강화시킨다.

네째, 대학 공부에 적절한 方略을 학생 스스로 개발하고, 이 측면에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한다. 學習心理學, 記憶心理學 또는 思考心理學의 발견들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공부方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특히 전공지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숙달하는 데 필요한 方略들을 알 필요가 있다.

다섯째, 推理力과 讀解力을 기르도록 한다. 추리과정과 독서과정에 관한 실험·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추리·독서 과정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생들이 면학의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대학 강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강의 내용을 제시할 때, 학생의 直觀的 지식이거나 기존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지식이 되도록 강의를 구성한다.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활용할 때 그 狀況을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학생 스스로 전공지식의 힘을 경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정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精神能力, 예컨대 관찰력, 논리적 분석력, 실험 정신이나 바람직한 태도를 학생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생의 기타 學習能力, 즉 토의력, 문장력, 발표력 등은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강화시켜야 한다.

아홉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그 對應方略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스트레스 원인이 경제적 여건에 기인하는 좌절 때문인지, 과중한 심리적 負擔 때문인지, 어떤 유형의 葛藤 때문인지를 분석하도록 하고, 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方略을 가르쳐 준다.

필자의 생각으로 대학생의 면학 장애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교수나 강사 및 학생복지 기관, 예컨대 학생생활연구소가 三位一體가 될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오리엔테이션, 다이얼로그, 또는 각종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공부방략, 추리력, 독서력, 기타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교수나 강사는 學生中心의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강렬한 흥미를 갖도록 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생이 日常經驗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전문 지식이 잘 연결될수록, 또 전문 지식이 학생으로 하여금 狀況이나 課題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수록, 전문지식에 대한 학생의 의욕은 더 한층 강화된다. 학생 자신은 대학교육과 대학생활에 대해 가능한 공개된 마음으로 접근하고, 전공의 여러 분야들을 탐색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와 같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學習態度를 가져야 하며, 대학공부를 자신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전공 공부에 적절한 공부방략을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成績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학습방략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연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수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략을 다른 학생들의 능력, 방략에 맞도록 변형·개선시켜서 실시하여 학생들 특히 노력은 많이 하지만 끈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습방략의 訓練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방략에 관한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주로 겪는 갈등의 유형, 심리적 부담의 원인들을 학생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또 그 대처 방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 특히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한다.

V. 맺는 말

大學生活은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시기에 이모저모로 면학의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해결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나 교수는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며, 大學生이된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의 고민에 동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동된 노력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은 목전의 목표, 예컨대 입시 위주, 사회적 인식 위주로 학생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기보다 긴 眼目에서 학생의

전공선택을 도와주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 바탕을 둔 진로 지도, 가능하다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진로 지도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학생 자신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공개된 마음으로 가능한 한 몇 가지 目標을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 역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공부해야 한다. 전공지식을 철저히 파악하고 숙달하고, 자신에게 가혹할 만큼 철저히 공부를 해야 한다.

필자의 觀察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매우 우수하지만 미국 대학생들만큼 공부하지 않으며, 전공 이외의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潛在能力을 가능한 한 철저히 탐색하고, 전공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학생이 전공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고 적절하게 접근하고, 공부하여 대학 공부와 대학 생활이 그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한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학의 장애가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에 앞으로 대학생의 면학 장애의 원인, 대처 방략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전공 지식을 어떤 방략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라든지, 優秀學生의 공부방략이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군다나 효과적으로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략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방면의 研究들이 많아야만 학생이 면학 장애를 극복하는 데 우리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